

양현종 후반기도 기록 브레이커

7승 더하면 다승 단독 2위

역대 두번째 1,800K ‘-48’

최형우 통산 타점 1위 도전

KIA 타이거즈 양현종(34)과 최형우(38)가 후반기 KBO리그 대기록에 도전한다. 양현종은 통산 다승 2위, 최형우는 역대 최다 타점을 노린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다 올시즌 국내로 복귀한 양현종은 전반기 18경기에 등판해 8승 4패 106이닝 평균자책점 2.97점을 기록했다.

지난 12일 LG전에서 시즌 8승과 함께 통산 155승을 거둔 양현종은 통산 다승 2위 정민철 한화 단장(161승)과의 격차를 6승으로 줄였다. 아울러 통산 최다 탈삼진 2위(1,752개), 최연소(34세 2개월 18일) 150승 등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양현종은 22일 시작하는 후반기에도 많은 기록에 도전한다.

양현종은 후반기에 5승을 추가하면 송진우(210승), 정민철(161승) 이후 역대 3번째로 160승 고지를 밟게 된다. 7승을 더하면 다승 단독 2위로 올라선다.

역대 두 번째 1,800탈삼진도 눈앞이다. 48개가 남았다. 이 부문 역대 1위는 송진우 전 코치(2,048개)로 현재 기량을 유지한다면 2~3년 안에 경신이 가능하다.

양현종은 아울러 송진우(한화·3,003이닝), 이강철(KIA·2,204%이닝), 한용덕(한화·2,079%이닝), 정민철(한화·2,394%이닝), 김원형(SK·2,171이닝), 배영수(한화·2,167%이닝)에 이어 역대 6번째 2,100이닝(-8이닝)과 역대 5번째 8년 연속 10승 기록도 눈앞에 두고 있다.

최형우도 다양한 기록에 도전한다. 먼저 최다 홈런 5위가 눈앞이다. 역대 최



양현종

다 홈런 6위인 최형우(349개)는 3개의 홈런을 치면 양준혁(351개·은퇴)을 넘어 이 부문 5위에 오른다.

역대 홈런 순위는 1위 이승엽(467개·은퇴), 2위 최정(415개·SSG), 3위 이대호(362개·롯데 자이언츠), 4위 박병호(354개·kt) 순이다.

최형우가 가장 희망하는 기록은 개인 통산 타점 1위다.

최형우는 현재 1,425타점을 올려 1위 이승엽(1,498타점)에 이어 개인 통산 타점 단독 2위를 달리고 있다. 75타점을 올리면 KBO리그 타자 중 그 누구도 밟지 못한 1,500타점을 선점하게 된다.

한편, 투수 김광현(SSG 랜더스)은 역대 5번째 150승 고지에 도전한다. 그는 올 시즌 전반기 9승 1패 평균자책점 1.65의 특급 성적을 거두며 개인 통산 145승 78패를 기록 중이다.



최형우

김광현은 5승을 보태면 송진우, 정민철, 양현종, 이강철 현 KT 감독(152승 112패)에 이어 다섯 번째로 150승 고지를 밟게 된다. 이 밖에 2승을 추가하면 개인 통산 다승 5위 선동열 전 국가대표 감독(146승 40패)을 제치고, 8승을 거두면 4위 이강철 감독마저 넘어선다.

타자 중에서는 박병호(KT)가 역대 홈런 3위를 노린다.

역대 홈런 순위에서 1위 이승엽(467개·은퇴), 2위 최정(415개·SSG)이 멀찌감치 앞선 가운데 3위 이대호(362개·롯데 자이언츠)를 4위 박병호(354개·kt)가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박병호는 전반기에만 27개의 홈런을 쳤고, 이대호는 11개를 넘겼다. 현재 추세라면 박병호가 은퇴를 앞둔 이대호를 넘어 역대 홈런 3위를 꿰찰 수도 있다.

/조혜원 기자

파노니 시험대 오른다…오늘 롯데전 선발

김종국 감독 “일단 5할 사수”

KIA 외국인 투수 파노니가 2022시즌 후반기 첫 선발 중책을 맡았다.

짧은 올스타 휴식기를 마친 KIA는 22일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와 후반기 첫 경기를 갖는다. 선발 로테이션상 양현종이 등판 예정이었으나 김종국 KIA 감독은 파노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종국 KIA 감독은 21일 “롯데와의 첫 선발은 파노니다. 양현종은 휴식 차원에서 2차전에 등판한다”고 밝혔다.

전반기를 승률 0.512, 중간순위 5위로 마친 KIA는 후반기 상위권 도약을 노린다. 2게임차 4위 KT와 격차를 좁히고 순위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롯데, NC, SSG로 이어지는 후반기 초반 경기가 중요하다.

김종국 KIA 감독은 “후반기 부상 선수 복귀 시점인 8월 초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주전 선수들이 빠져있을 때 이기는 건 쉽지 않다”며 “일단 5할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놀린이 복귀하면 파노니와 함께 잘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파노니

파노니는 지난 7일 광주 KT전에서 2%이닝 1실점을 기록했으나 우천 노게임이 되면서 공식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14일 LG전에서는 4%이닝 4실점을 기록, 후반기 첫 경기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부상 후 한 달이 넘도록 치료와 재활을 거친 놀린은 지난 13일 상무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선발 등판해 첫 실전 투구에 나섰다. 1%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으로 독보적인 활약을 아니었으나 직구 최고 구속은 145km에 이를 정도로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혜원 기자



광주대학교가 21일 상주체육관 신관에서 열린 제38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 여대부 결승에서 수원대에 저 준우승을 기록했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 MBC배 대학농구 준우승

결승서 수원대에 72-76 패

광주대학교가 제38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 여대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대는 21일 상주체육관 신관에서 열린 수원대와의 대회 여대부 결승에서 72-76(14-24 18-19 13-22 27-11)으로 졌다.

지난해 제37회 대회에서도 준우승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광주대는 올해 다시 정상에 노렸으나 마지막 뒷심에서 수원대에 밀리면서 2년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다.

광주대는 초반부터 내외곽에서 열세를 보이며 리드를 내줬다.

1쿼터를 14-24, 10점차까지 뒤진 광주대

는 2쿼터에서 18득점을 따라붙어 32-43으로 전반전을 마쳤다. 3쿼터도 열세였다. 3쿼터 중반에는 34-55로 21점차까지 벌어져 패색이 짙어졌다.

광주대도 쉽게 패하지는 않았다. 4쿼터 막판 추격전을 펼쳤다.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71-72 1점차까지 따라붙었다. 광주대는 올코트프레스 전술을 펼쳐며 역전을 시도했으나 자유투도, 3점슛도 림을 외면했고 턴오버까지 나오며 추격 동력을 잃었다.

양유정(23점 5리바운드 2어시스트 4스틸)과 양지원(18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 3스틸 3블록슛)의 분전도 빛이 바랬다.

/최진화 기자

이승민, 장애인 US오픈 초대 챔피언

공식대회 첫 개인전 우승

발달 장애 프로 골프 선수 이승민(25)이 제1회 장애인 US오픈 정상에 올랐다.

이승민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파인허스트 리조트 6번 코스(파 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펠리스 노르만(스웨덴)을 연장전 끝에 물리치고 우승했다.

이승민은 최종 3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3타를 줄인 노르만과 최종 합계 3언더파 213타로 연장전을 벌였다.

이승민이 공식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안양 신성고 재학 때 전국제전 단체전 이후 두 번째다. 개인전 우승은 처음이다.

특히 미국골프협회(USGA)가 이번에 창설한 첫 번째 장애인 US오픈에서 초대 챔피언에 올라 의미가 더했다.

장애인 US오픈 남자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장애인 골퍼 78명이 참가했다.

발달장애 3급인 이승민은 2017년 한국프로골프(KPGA)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고, 지금까지 세 차례 프로 대회에서 컷을 통과



우승 트로피를 든 이승민. /USGA 제공

했다.

발달장애 2급이었던 이승민은 골프를 치면서 사회성이 발달해 3급으로 조정되기도 했다.

이승민의 어머니 박지애씨(56)는 “프로 대회에 여러 차례 초청돼서 큰 무대에서 날씨, 어려운 코스, 상황들을 경험하며 많이 성장했다”며 “한국에 돌아가면 초청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또바기 체육돌봄사업 선정

사업비 5,950만원 확보

전남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2022년 또바기 체육돌봄사업 공모에서 5,9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바기 체육돌봄사업은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참여자를 모집해 진행된다. 다문화 학생이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성과 잠재력을 발휘

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다양한 배경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교과, 체험활동 등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된다.

대한체육회는 9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했으며 전남도체육회는 대구시체육회 등 전국 7개 시·도체육회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남도교육청과의 협업

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참여율이 높은 학교 및 다문화정책 연구학교를 우선 추천받았다. 최종 확정된 학교는 목포 서부초등학교, 여수 미평초등학교, 순천 남산초등학교, 나주 영산포초등학교, 광양 다압초등학교다.

이들 5개교는 20~80여명의 학생을 모집, 오는 12월까지 매주 2회 총 24회 프로젝트 체육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목포서부초등학교는 티볼을, 여수 미평초는 줄넘기를, 순천 남산초는 수영을, 나주 영산포초교는 음악줄넘기를, 광양 다압초는 뉴스포츠를 각각 선택했다. /최진화 기자



대한민국 양궁대표팀 광주여대 안산(오른쪽)과 경북일고 김제덕이 20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2022 현대양궁월드컵 4차 대회 리커브 예선라운드에서 각각 여자부와 남자부 1위를 차지하며 톱시드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양궁연맹 홈페이지

김제덕·안산 양궁월드컵 예선 남녀 1위

여자 컴파운드 단체전 동메달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리고 있는 2022 현대양궁월드컵 4차 대회에 참가한 한국 대표팀이 리커브 예선 라운드를 좋은 성적으로 마쳤다.

20일(현지시간) 남자부에서는 김제덕(경북일고)과 김우진이 각각 687점, 684점을 쏘며 1, 2위에 올랐고, 오진혁(현대제

철)이 674점으로 9위, 이우석(코오롱)이 672점으로 12위에 자리했다.

여자부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1~3위를 휩쓸었다. 안산(광주여대)이 677점으로 1위, 이가현(668점·대전시체육회), 강채영(665점·현대모비스)이 차례로 2, 3위에 올랐다.

최미선(순천시청)은 665점으로 3위 강채영, 4위 카타리나 바우어(독일)와 동점을 기록했지만, 총 10점 발 수에서 뒤져 5위

에 자리했다.

여자 컴파운드 양궁 대표팀은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멕시코를 234-232로 제압하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열린 2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의 올 시즌 월드컵 단체전 2번째 메달이다.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앞서 준결승전에서는 영국에 232-233으로 졌다.

남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미국과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234-236으로 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연합뉴스